“너도, 나도 꽃”…정념 스님의 미래 문명

6월 19일 저서 출판기념회 개최
이광재와 AI · 불교 미래 등 대담
“AI, 인간 ‘업’ 먹고 사는 거울
화엄적 세계관으로 문명전환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6월 19일 열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에서 진행된 ‘저자와의 대화’에서 정념 스님이 이광재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너도 꽃이 되고 나도 꽃이 되어 세상 모두가 향기로운 꽃밭이 되는 세상, 그 길을 향해 우리 모두 나아갔으면 합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내보인 미래문명과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이다. 그 길은 ‘화엄’과 맞닿아 있다.

월정사와 도서출판 민족사는 6월 19일 서울 앰베서더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퇴우 정념 스님 저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회의 백미는 ‘저자와의 대화’였다. 대담은 이광재 국회의원이 질문을 던지고 정념 스님이 저자로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먼저 “스님은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분”이라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길을 만든다면 어떤 길을 만들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념 스님은 “길이라는 것은 길 없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며 “시대에 걸맞은 길, 미래로 향하는 길이 지금 가장 절실한 길”이라고 답했다.

스님의 미래로 향하는 길은 AI시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념 스님은 AI시대를 “효율성이 극대화돼 인간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사라질 수도 있는 시대”로 전망하면서도 그 이면에 놓인 인간성 상실의 위험을 지적했다. 스님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사회가 재편될 경우 “데이터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되는 기술공학적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효율과 경쟁이 극대화될수록 공동체는 해체되고, 알고리즘은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AI시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될 수 있다. 그 영역을 앞으로 종교가 감당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는 인간의 업을 먹고 사는 거울”이라는 책의 일구(一句)는 정념 스님이 가진 AI에 대한 관점을 명징히 보여준다. 업이라는 것은 “과거의 행위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선택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가 쌓여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기에 AI 역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고, 어떤 가치관에 의해 사용되는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미래 과제에 대해서는 화엄사상과 선 수행을 함께 제시했다. 정념 스님은 “AI시대의 효율과 경쟁 문화는 탐진치가 극대화된 문명”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화엄의 사유와 인드라망의 세계관은 미래 생태문명을 형성하는 사상적 틀이자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시대에는 고독과 외로움, 정신적 병리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한국불교의 조사선과 간화선 전통은 명상문화를 주도하는 정점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교구본사 주지, 주요기관장, 중앙종회의원 등 불교계 지도자부터 정치, 경제, 시민사회, 학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1000여 명이 운집해 눈길을 끌었다.

“로봇 가사, AI 통찰 부족했다”

정념 스님, 현장 기자간담회서
로봇 가사 착의, 선명상 비판
출마 관련 질문엔 “마다 않아”

차기 조계종 총무원장 출마가 유력시되는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사진〉이 현재 조계종 총무원에서 진행 중인 선명상 대중화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가사 착의 퍼포먼스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총무원장 선거 관련해서는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선거는 대중의 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념 스님은 출판기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던진 질문에 평소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전했다.

AI 대전환 시대 불교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 출발한 간담회는 자연스럽게 종단 운영 방향과 조계종 정체성 문제로 이어졌다. 정념 스님은 “AI에게 수계를 하거나 로봇에게 가사를 수하게 하는 것은 AI를 깊게 통찰하지 못한 결과”라며 “종교는 인간성의 문제이자 영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등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사를 입힌 장면에 대해서는 “AI 성직자나 사제, 수행자가 탄생하는 일은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값싸게 활용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다”며 “종교가 해야 할 일은 AI가 인간에게 봉사하고 인간과 원만하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차원의 AI 윤리선언과 이를 만들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념 스님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특히 전쟁 등에서 AI가 군사적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명을 고려하지 않는 AI 선택에 의해 전쟁이 수행되는 문제에 대해 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불교는 인간성을 회복하고 삶이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총무원이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에 대해 정념 스님은 “보편적으로 명상은 수행 문화의 의미를 지니지만 조계종 종지종통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스님은 “‘선명상’이라고 할 때는 선과 명상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선도 명상의 한 부분이라는 식으로 규정되면 조계종이 추구하는 선종의 본령과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의 선풍은 조사선과 간화선에 바탕함을 강조한 스님은 “본래 도는 닦아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 전환을 통해 본래 닦을 것이 없음을 확연하게 체득하는 것”이라며 “구할 것도 닦을 것도 없는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조사선의 본령”이라고 했다.

종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퍼포먼스 형태의 이벤트 중심으로 교단이 나아가는 것은 정체성의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거 관련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정념 스님은 “종교 집단의 선거는 세간의 사표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선거 열풍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 풍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큰 소임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마다할 일은 없다”고 답했다.

신중일 기자

원광 법사 후예들 “군포교 사명 다하겠다”

군종교구, 6월 23일 서울 조계사서
‘제59기 신임 군승 고불식’ 봉행

신임 군승 5명이 “원광 법사의 후예로 신명을 다해 장병들과 함께 군포교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6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59기 신임 군승 고불식’을 봉행했다. 고불식은 신임 군승 59기(군종 84기) 5명이 부처님전에 군포교 원력을 서원하고 전법 사명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에 임관한 군승은 육군 미공·무진·여여·정견 스님, 해군 문수 스님 등 5명이다. 군승들은 3월 26일 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해 5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수료했다. 이후 육군 종합행정학교에서 진행된 7주간의 실무교육을 수행하고, 육군·해군 군승으로 6월 19일에 임관식을 무사히 마쳤다.

이날 신임 군승들은 발원문에서 “원광 법사의 후예로 임관하여 전역하는 그날까지 신명을 다바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군승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수행자의 본분사를 잃지 않을 것”이라며 “부처님 법을 등불 삼아 장병들 곁에 항상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역사 속 스님들은 전란의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살의 화현으로 구국에 앞장섰다”며 “선배 스님들의 정신을 계승해 부임하는 부대에서 참된 군종장교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무형전력 강화를 통한 강군육성에 앞장서고 ‘국군장병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라’는 부촉을 가슴에 새겨, 부루나 존자의 후예로 불법홍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불식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국방부 군종정책과 종오 스님, 제2작전사령부 현조 스님,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교육단장 지용 스님, 공군본부 군종실 진홍 스님, 현역 군승 등 3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신임 군승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고불식을 마친 신임 군승들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로 이동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진우 스님은 신임 군승들의 임관을 축하하며 “앞으로 젊은 불자들이 많이 늘어나야 미래의 불교가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해 신임 군승들이 군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군인 불자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신임 군승 5명은 6월 19일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열린 제84기 군종사관 임관식을 통해 정식 임관했다. 임관식 후 군법당 호국남성사(주지 능파 스님)에서는 군종교구 주관으로 임관축하 법회가 봉행됐다.

법원 스님은 법문에 앞서 신임 군승들을 직접 소개하며 격려했다. 법원 스님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출가한 것이고, 그다음이 군승이 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부처님 법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전방과 격오지 등 가장 절실하게 부처님 법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며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군승의 길을 선택한 의미를 더욱 깊이 알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지운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6월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59기 신임 군승 고불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고불식에서 신임 군승 5명이 장궤합장하고 전법선언을 합송하며 군포교 소명을 다짐하는 모습.



조계종연구소

종책개발 논문공모전

~ 2026 10.31 토 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는 한국불교와 종단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소입니다. 불교의 중흥과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부대중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를 종책 개발의 초석으로 삼고자 <종책개발 논문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공모 분야

논문 주제 (한 가지를 택하여 논문 작성)

1. 불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조계종의 미래 구상
2. AI시대와 선명상의 실천적 가치와 대중화 방안
3. AI전환기, 스마트 포교의 혁신 모델 제안
4.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사찰 역할 다각화 방안

최우수상 1명 (상금 500만원) 우수상 3명(상금 각 300만원) 장려상 5명(상금 각 200만원)

접수 기간
- 불기2570(2026)년 10월 31일까지
- 보내실 곳 : fourdeva@wehago.com (※우편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
- 문의: fourdeva@wehago.com / 02-2011-1993

수상자 발표
- 11월 심사 후 수상자 개별 통보 • 12월 시상식 개최

원고작성 요령(※이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한글 워드프로세서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150매 이하.
- 1쪽에 논문 제목, 성명(법명, 스님일 경우 속명도 함께 기재), 현재의 소속 및 지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야 함.
- 2쪽에 제출하는 논문의 핵심에 대해 200자 원고지 600자 이상 800자 이내의 초록(요약)을 작성해야 함.
- 3쪽부터 본론 작성.

유의사항
-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보내야 함.
- 기존 논문의 표절, AI를 이용한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며, 시상 이후에 밝혀졌을 경우 상장과 상금을 회수함.
- 선정된 종책 제안의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됨.
-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논문은 심사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됨.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종연구소